

[우수작]

희망을 준다면서 희망을 뺏는 대박비법
‘돈버는 비법’ 알려주는 프로그램의 허와 실에 대하여

김 선 덕

경제가 어렵다. 너도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시대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돈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유독 눈이 간다. 그 중에서도 SBS의 ‘해결 돈이 보인다’를 즐겨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대박을 낼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프로그램, 돈 벌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 사람은 안 볼 재간이 없다.

더군다나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불쌍한 사람들만 골라 대박 비법을 알려주니, 왜 나는 저렇게 못되나 하는 질투 느낄 새 없이 안타까운 마음 안고 눈물까지 글썽여가며 볼 수 있어 좋다. 그야말로 ‘뽕 먹고 알 먹고’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진행자가 프로그램 말미에 매번 내뱉는 한 마디가 뇌리에 남아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우리 해결 돈이 보인다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박비법은 분명 누구에게나 일생일대의 기회고, 희망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암 투병 환자의 가족, 불치병 환자의 가족처럼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분명 놓칠 수 없는 희망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대박비법 전수자로 선정되는 순간,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서 ‘대박비법을 전수받기도 전에 벌써 저렇게 기뻐하다니, 이걸 희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로또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줬으면 됐지, 그것이 로또든 뭐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을 주기는 주는 것일까?

진정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된 점은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준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처음에 나를 매혹시켰던 그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획초기에는 ‘성공한 사람에게서 성공의 특별한 노하우와 비법을 배워 폭넓은 성공의 길잡이를 제시 한다’ 는 기획의도(인터넷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음)를 가지고 ‘돈’ 자체에 경도되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교육적 의미’ 의 경제오락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지만 프로그램 초반이 지나자마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준다’ 는 ‘자선적 의미’ 의 오락 프로그램으로 변질됐다.

문제는 변질 됐음에도 여전히 ‘해결! 돈이 보인다’ 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자주 보는 시청자로서 진정 네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인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목적인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목적이려면, 노력하여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가, 그저 희망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목적인가?

이 프로그램 초기로 돌아가 살펴보자.

2003년 7월 30일 1회의 방송분에서는 라면 하나로 월 매출 천 만원을 달성한 대박집과 하루 매출 3만원으로 폐점 위기에 처한 쪽박집이 소개되면서 쪽박집을 대박집으로 기사회생 시키는 과정이 방송되었다.

라면은 요리가 아닌 과학이라는 달인들의 비법이 상세히 소개되면서 노하우를 익히는 쪽박집 주인 뿐 아니라 시청하는 나도 라면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흥미로운 ‘성공 노하우’ 여서 기억에 오래 남았다. 라면집 뿐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야말로 ‘경영 노하우, 성공 노하우’ 였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이른바 기사회생 ‘교육’ 이 잘 되었다고 느껴졌다.

1회 쪽박집이 기사회생 하는 과정에서 쪽박집의 어려운 사정도 함께 소개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흔히 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최근에 방송된 내용 중 하나를 살펴보자.

2004년 9월 22일 52회 방송분에서는 쪽박 분식집을 대박 얼큰이 영양굴밥 집으로 기사회생시키는 과정이 방송되었는데, 방송 중반 이후 쪽박집 의뢰인의 어머니가 간암판정을 받아 투병 중이라는 사연과 어머니의 재혼으로 맺어진 양아버지와 양아들 사이에 7년 동안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연이 ‘기사회생 프로젝트’ 보다 부각되었다. 기사회생 프로젝트 진행 중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어 프로젝트가 잠시 중단

되고 그 와중에 양아버지와 양아들이 갈등하는 내용이 마치 ‘드라마’ 처럼 전개되면서 기사회생 프로젝트 중 중요내용으로 전달되어야할 ‘성공 노하우 전수 과정’이 간단하게 지나가 버렸다. 대박비법 ‘교육’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자선’의 의미만 남았다.

그렇다면, 자선하는 것이 나쁜 것인가?

아니다. 자선은 좋다. 불쌍한 사람들, 돈 벌게 도와주는 것 좋다.

이 프로그램이 초기에 내세웠던 ‘폭넓은 성공 노하우의 길잡이’ 역할에서 많이 벗어나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기획의도로 변질된 것은 아쉽지만, 백번 양보하여 좋다고 치고 넘어가자. 불쌍한데, 도와줘야한다는데 어찌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 기획의도의 변질을 수용하고자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드립니다’라는 말은 거북하게 들린다. 왜일까?

희망은 로또가 아니다

우선, 나는 ‘희망’을 ‘로또’식으로 주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은 많다. 성공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들다. 일개 방송 프로그램이 나라도 구제하기 힘들다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을 모두 구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불쌍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것은 나머지 불쌍한 사람들에게 외려 소외감을 주고 로또식 사행심만 부추긴다는 인상이 남는다.

쪽박집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다. 프로그램 말미에 제보를 해달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제보하는 쪽박집은 다 도와주는 것인지, 정말 정말 불쌍하고 안된 사연을 제보해야 도와주는 것인지 모호하다. 그러니 ‘운이 좋으면’ 쪽박집으로 선정되어 대박나는 행운을 얻게 되는 것이요, 운이 없으면 쪽박집으로도 선정되지 못한다. 로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아주 아주 불쌍하고 안된 사연이면 된다는 것이다. 좋게 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불쌍하고 안된 사람들의 사연을 방송용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먹는 장사들’만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 초반에 미용실과 청과물 가게가 소개된 적도 있었지만 이 단 두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먹는 장사였다.

아주 아주 불쌍하고 안된 사람들 중에 먹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만 불투명한 선정 과정을 통해 쪽박집으로 선정된다.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럼 ‘희망이 필요

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는 소리를 하지 말라니까.

희망은 로또가 아니다.

희망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말을 그대로 실현하려면, 이 프로그램의 초기 기획의도대로 먹고 살만한 정도의 성공이 필요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넓은 성공 노하우의 길잡이’ 가 되어야 한다. 특정 업종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업종의 성공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특정한 불쌍한 사람 몇을 로또식으로 선정해서 한번에 ‘대박 나게’ ‘돈을 왕창 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 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뺏는 것이다.

대박집 더 띄워주기

두 번째로 내가 ‘희망을 준다’ 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쪽박집에게 희망을 준다면 대박집 홍보에 더 힘을 주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쪽박집의 사연이 소개되고 이어서 쪽박집을 ‘돈 벌게 해줄’, ‘대박 나게 해줄’ 대박집이 소개된다. 대박집의 성공 포인트와 대박집이 되기까지의 사연과 대박집의 ‘엄청난 맛’ 소개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대박집 홍보’ 로 기선을 잡는다. 여기서 쪽박집의 정말 정말 불쌍하고 안된 사연은 ‘대박집’ 이 쪽박집을 도와줘야 할 이유로 전략한다.

대박집 사장은 쪽박집을 둘러보고 쪽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평가한 후 ‘하지만 사정이 안됐으니 도와주겠다’ 고 비법 전수를 결정하는데, 성공한 자가 성공의 일부를 아무 대가 없이 사회로 환원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실천인 듯도 싶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가장한 자기 홍보일 뿐임을 시청자는 누구나 안다.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만 바라보느냐, 선의로 볼 수는 없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쪽박집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많이 자주 대박집의 ‘맛’ 과 ‘노하우’ 의 우수성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쪽박집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렇다면 대박집 성공 사연이나 ‘달인’ 확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더 쪽박집이 배워야 할 ‘가르침’ 에 집중해달라니까!

쪽박집에 희망을 준다면 대박집의 ‘대박 키우기’ 희망만 키워주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정말 대박집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면서 쪽박집에게 희망을 주려면, 대박집이나 쪽박집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노하우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먹는 장사에서의 노하우 전수는 음식 솜씨가 대부분을 자치하므로 요리학원 같은 전문교육원에서 노하우 전수가 이뤄지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야 시청자도 쪽박집 주인과 같은 눈높이 입장에서 ‘노하우 전수’의 혜택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7일만 지나면 희망이 보인다?

쪽박집이 대박집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과정도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쪽박집으로 선정되면 대박집에서 ‘7일간의 호된 훈련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쪽박집 주인들은 열의 열 모두 눈물을 보인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다. 남의 비법, 그것도 돈을 대박으로 벌게 해줄 비법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배우겠다는 것은 놀부 심보니 눈물은 당연한 과정이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 누구나 느끼는 의문 하나.

7일간의 호된 훈련과정만으로 대박 비법을 배운다는 것이 가능한가?

7일 후에는 정말 대박집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나?

‘7일’만 지나면 쪽박집에서 대박집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신데렐라를 도와줬던 요정도 상상하지 못할 대단한 ‘마술’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은 아무도 7일 후에도 노하우가 전수되지 못할 수 있고, 7일 후에도 돈을 못 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기다리기만 하면 프로그램 후반에는 짜잔! 마술처럼 노하우가 전수되고 손님이 들끓어 돈을 대박으로 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방송 프로그램이라는 마술사 없이는 불가능한 희망이다.

희망은 없고 환상만 남는다.

희망을 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희망을 준다면서 희망을 뺏기만 하는 프로그램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희망을 주려는 노력조차 포기해야하는가?

‘희망을 주기보다 희망을 뺏는’ 프로그램은 비단 특정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방송은 해야겠고,

협찬은 받아야겠고, 시청자들의 흥미는 끌어야겠고... 안다.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좀더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해결! 돈이 보인다’ 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엿보인다.

2004년 10월 6일 방송분에서 진행자가 교체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도 다소 변경이 있었다. 쪽박집 주인들은 대박집에서 7일간의 훈련을 거치고 바로 개업하지 않고 ‘최종관문’ 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전문요리인과 홍보전문가,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판정단이 쪽박집 주인들이 대박비법 노하우를 제대로 체득하였는가, 개업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있는가를 판정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재교육’ 을 시키도록 한 것이다. 물론 여전히 7일에 안된 것이 14일에는 되나? 하는 의문이 남지만, 방송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그만큼 ‘희망을 주기 위해’ 숙고했다는 뜻이므로 긍정적인 발전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희망을 준다’ 는 의미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저 불쌍하고 안된 사람들의 사연에 울고, 쪽박집이 돈 대박으로 버는 모습에 웃는, 하나의 오락 거리로 그치지 말고, 평범한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의 대박비법을 보고 언젠가 나도 돈을 벌 수 있다, 많이는 못 벌어도 땀 흘려 노력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먹는 장사 같은 소비 형태의 서비스 업종만 소개하지 말고 경제 기반을 잡아주는 생산 업종들, 남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에서의 ‘성공’ 과 ‘대박비법 노하우’ 도 전수하여 좀더 넓고 다양한 ‘희망’ 을 주었으면 좋겠다.

한번의 자선, 노하우 전수로 쪽박집에서 대박집으로 변신하는 마법을 보여주기 보다는 쪽박집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 고민하고 개선하여 좀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짜 비법 전수’ 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래도 시청률을 고려해야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니냐고? 부처가 될 수 없다고 땡증을 목표로 삼을 수는 없지 않는가?

물론 아직까지는 ‘그러면 좋겠다’ 고 바라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진짜 ‘희망’ 을 주는 프로그램이 짜잔! 마법처럼 나타날 지도 모른다. 희망은 마법이 아니지만 말이다.